

유독물질 함유 생태계에 '치명타'

◇ 산업폐수는 유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정화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방류되면 각종 암이나 기형아를 출산시키는 악영향을 준다.

자동차 한대를 생산하기 위해 약 1백 20톤의 물이 소모된다. 자동차를 움직이는 가솔린 1리터를 제조하기 위해 약 70리의 물이 희생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원자재인 강철 1톤당 약 1백

끼지는 것만은 틀림없다. 91년 3월 대구의 수도물에서 악취가 나는 페놀오염사건으로 온 국민이 떠들썩한 적이 있다. 페놀은 환경처에서 유독물질로 지정한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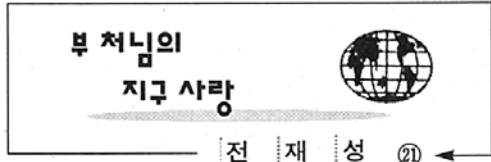
음용수기준의 1백배를 초과했고, 그 밖에 구로공단, 구미공단, 창원공단 등에서도 모두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직접적으로 산업폐수는 아니지만 산업폐기물의 무단 방치에서 오는 폐기를 침투수가 수질오염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아직 산업폐기물의 절반 정도는 배출입소의 자가매립장에 매립되지만 대부분 소규모로 다량의 각종 중금속이 함유된 유해침출수를 무단으로 방출하고 있는 형편이다.

나머지는 산업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지만 처리능력이 부족해 상당부분 야산등지에 불법매립하고 있어 거기에서 발생하는 유해침출수는 지하수와 하천을 오염시킨다. 그리고 공장과 자동차에서 나오는 폐열유해는 카드뮴, 구리, 납 등의 중금속과 발암성 화학물질이 들어 있는데, 이 가운데 1년에 약 58만톤(37%)이 불법 처리되고 있어, 수질오염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밖에 최근에 버려진 전선지, 수은 전지 또는 페놀리튬유에 의한 지하수 오염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 중금속 등이 용해된 물은 그 유명한 "이타이이타이"병이나 각종 암을 유발한다.

(한국불교대 교수)



산업폐수

한국 하루 6백만톤 발생...수질오염·질병 유발

부처님은 "물의 세계를 향수하는 자는 괴로움을 향수한다"라고 말했다. 청정한 물은 즐거움을 수반하고 즐거움을 드러내고 괴로움을 드러내지 않지만 인간이 사용하고 버린 물은 괴로움을 수반하고 괴로움을 드러내고 마침내 죽음의 원인으로까지 발전한다. 물을 가장 집약적으로 이용하는 분야는 인간의 욕망의 대상을 대량생산하는 산업체일 것이다. 산업체에 이용되고 버려지는 물이 산업폐수인데, 산업폐수는 인간욕망의 잔해로서 생명체에 치명적인 유독한 물질들로 이

루어져 있다. 1988년 우리나라의 하루 공업용수 사용량은 6백56만톤 정도(해발전소의 온배수제외)인데 2011년에는 약 1천만톤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중화학공업에서의 생산은 고온, 고압하에서 이루어지므로 사용되고 있는 82%가 냉각용·세척용으로 사용되고, 필로·제지 공업에서는 제품처리와 세척에 70%가, 원료병각용으로 20%가 사용되고 있다. 물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제품생산에도 대량의 물이 소모된다. 예컨대

톤, 알루미늄 1톤당 약 1백90톤, 신문용지 1톤당 약 2백20톤, 석유화학제품 1톤당 약 1천10톤, 인조견사 1톤당 1천 8백톤, 합성섬유 1톤당 3천1백60톤 등의 물이 소모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물로 만든 자동차를 타고 물로 만든 신문을 보고 물로 만든 합성섬유옷을 입고 다닌다고 보아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용되고 버려지는 하루의 6백50만톤의 물은 모두 유독성인 것은 아니지만, 무단 방류되었을 경우 어떠한 형태로 생태환경에 악영향을

케를 수지, 염료, 살균제, 농약 등의 원료로 쓰이는 물질이며, 인간에게 각종 암이나 생식 이상을 일으킨다. 공단폐수에는 페놀뿐만 아니라 벤젠, 살충제, PCB, 트리클로로 에틸렌(TCE), 폴리인, 불루엔, 클로로벤젠, 클로로페놀 등의 각종 독성 화학물질이 중금속과 함께 섞여있어 상수원 오염의 심각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최근의 환경처 조사에 의하면 트리클로로에틸렌의 경우 인천의 4공단의 지하수에 3.08ppm이 검출되어 WHO

광복 50주년 기념 성명서

화재사상으로 진정한 광복을

월 주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민족분단을 극복하여 동양의 열일을 달성해야 할 소명을 안고 있는 우리민족은 우리를 둘러싼 모든 문제를 근원적으로 진단해야 한다. 이기주의와 황금만능을 만든 근원과 파행현실까지 극복과 치유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중생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인정하는 진실된 자세의 확립을 통해 세계의 변화에 역류치 않고 새로운 사회통합을 이끌어 낼 때만이 사회와 민족발전에 기여할 자격이 주어질 것이다.

특히 민간기구·단체의 남북간 자율교류에 제해가 되는 관계법을 남북한 공히 개정하여 자율교류의 실질효과를 높여 진정한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남북당국은 '7·4남북 공동성명'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 합의서'를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남북간에 부처님의 종도와 화쟁사상을 기본으로 화해와 신뢰를 회복하고, 교류협력력을 활발히 추진함으로써 평화통일을 앞당기도록 노력해야 한다.

'95 신행 캠페인

참다운 불자가 됩시다

불자가 아닌 사람들은 일터에 많은 어린이들의 눈초리 반적으로 절(寺)을 오래된 문화유적이거나 관광지지만 생각해 쉽다. 하지만 우연하게 절에 왔다가 자연스럽게 불교에 감화되어 독실한 불자가 되는 경우도 많다.

경주남원불자회장인 김덕수씨는 지난 70년 여름밤 학때 경주 남산 칠불암에서 '대일 예비고사 준비 학생을 위한 공부방'에 참가 하면서 불교

에 감동되어 동참하다보니 어느새 자연스럽게 절에 다니게 되었다. 관공이나 등산 또는 휴가여행 등, 많은 사람들이 절의 푸근한 품에 안길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일행중에 불자가 있으면

어 내내 그 다음 혹은 그 다음에 불교라는 세계에 새롭게 뛰어든 개안자가 생길지도 모르는 일이다. 불자라면 자신뿐 아니

금주의 주제

이웃과 함께 절에 가자

경건한 분위기에 저절로 발심 부처님 가깝게 만나는 계기

와 인연을 맺었다. 한달동안 지도하는 선배 두 분과 후원회원 3명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 4명 등 모두 9명이 새소리를 들으며 공부하면서 아침 저녁 예배를 모시고 바루 공양으로 화합을 다지는 동안 불자가 되었다는 것.

서울 명륜동 한수진씨는 두달전 금하선원이 마련한 '차 한잔의 사랑나눔 마당, 소년소녀 가장 및 심장병어린이 돕기 기금조성 일일차 대절' 행사장에 들렀다가 자비행을 펼치는 스님과 티없이

라 가까운 친족, 동료, 친구, 이웃과 함께 절(또는 포교당)에 들릴 수 있는 자연스러운 기회를 만들어 봄이 좋을 것이다. 조용하고 맑은 분위기와 수행의 기풍이 몸에 배일 수 있다. 여름을 맞아 시원한 산과 계곡을 찾을때 이웃과 함께 꼭 절을 찾도록 하자.

불교를 잘 모르거나 잘못된 선입견을 가진 친구나 이웃들을 불교와 친숙하게 하려면 절에 직접 함께 가는 기회를 만들면 좋을 것이다.

신행수첩

왜 삼보에 귀의해야 하나 불교연구원 교리강좌

불자들은 흔히 '삼보(三寶)에 귀(歸)한다'는 말을 자주 쓰지만 정작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본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삼보에 귀명(歸命)하는 것이 현대사회에서는 어떠한 의미를 지니며

그 실천방법은 어떠한지를 알아보는 일은 불교인의 근본문제라 아닐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불교연구원(원장 이기영)이 17일~23일까지 마련하는 '귀명삼보의 이해와 실천' 주제의 불교기초교리과정은 이 문제에 대한 뚜렷한 해답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불교에서 '공경의 대상(보배)'으로 여기는 삼보는 깨달

은 부처님들을 의미하는 불보(佛寶), 부처님이 말씀한 교법인 법보(法寶), 교법대로 수행하는 출가자들인 승보(僧寶)를 의미한다.

또한 '귀'는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뜻으로 중생의 여러 감각기관이 한 마음(-心)에서 나왔으므로 생명의 근원을 찾아 근원인 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을 말한다.

매일 오전 10시30분~12시까지 서울 개포동 연구원 법당에서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이기영박사와 동국대 정병조교수가 맡는다. (02)3411-6167~8.

선묘의 아름다운 전설을 법련사 22일 성지순례

심산유곡에 자리한 천년고찰들은 귀중한 불교문화재들과 아름다운 전설이 전해내려오기 마련이다. 소백산 국망봉 등쪽 봉황산 기슭에 오롯이 자리한 법련사와 소백산 연화봉에 위치한 회망폭포의 절경이 굽어 보이는 회망사 또한 그러하다. 특히 부석사에는 국보 18호



◇전북 남원 지리산 실상사는 구산선문의 하나인 실상산문(實相山門)을 개산(開山)하면서 창건된 사찰로 보광전을 비롯한 약사전, 명부전 등 부속건물이 많기로 유명하다.

인 무량수전을 비롯한 다수의 국보·보물급 문화재들이 보존돼 있어 불교문화의 숨결과 의상대사를 사모한 선묘의 불심을 다시금 느낄 수 있다. 회망사에도 참견주인 두운대사와 한 남자의 아름다운 전설이 전해오고 있다.

장마철도 지나고 여름휴가철도 지난 오는 22일 화요일 법련사에서 부석사와 회망사로 떠나는 의미있는 성지순례에 불자들의 동참 바란다. (02)733-5322

정토를 찾아 지리산으로 문화재보호재단 유적답사

지리산 줄기를 따라 내려온 길 전북 남원엔 이름난 불교유적을 보유한 사찰들이 많다. 특히 실상사와 민복사지는 가볼만 한 곳.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오는 22일부터 1박2일간 우리 문화재의 숨결을 느끼기 위한 문화유적답사를 개최한다. 당간지주와 오층석탑 등이 우

아함을 뽐내고 있는 민복사지와 한국 불교사의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삼층석탑 등 빼어난 보물들을 보유한 지리산 실상사는 불교유적의 진수를 보여주기 부족함이 없을 듯. 마지막 호남의 대가람 백양사에서는 선계(仙界)속의 고색찬란한 극락보전 등이 보는 이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

관람에도 문화유적에 대한 강도도 있을 예정이며 모집은 선착순 40명. 간편한 복장에 필기 도구 지참. (02)266-6938

현대불교와 함께 일할 신문 판촉사원을 찾습니다

현대불교는 불자들이 복잡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할 수 있도록 전 지면을 신행위주로 제작해 오고 있습니다.

전국의 불자님들 가정에 '신행의 길잡이' 현대불교를 보급하는 일에 저희와 함께 동참할 '일선 전법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구분	모집인원	시기	자격	구비서류	대우
신문 판촉요원	00명	상시	제한없음 (교계활동 경력자, 기성주부 환영)	자필 이력서 주민등록본 2인 1부	소정의 월 봉급 및 휴대폰 요금 지급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화(02)737-8881 판매팀/인사팀 문의 바랍니다.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속의 불교 36

장미라는 이름엔 향기가 없다

어느 한 가지에 집착하여 다른 것은 천하다고 깔보는 것-술기로운 사람은 그것을 축쇄라고 한다. 부처님 말씀이다.

비록 자신의 견해가 명확한 것이라 할 지라도 거기에 집착한다면 그것은 굴레가 된다. 비록 자신이 믿는 종교가 명정하다 할지라도 '이것만이 보물 같다', '이것만이 참이다' 하여 애지중지한다면 그런 사람은 그 가르침이 멧목 같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부처님의 저 유명한 멧목의 비유-강을 건너는 데 멧목이 아무리 유용했다 해도 그 멧목을 지고 다닐 수 없지 않느냐는 말씀이 상징하는 것. 그것은 가르침이 비록 수승할지라도 수행을 위한 것이지 집착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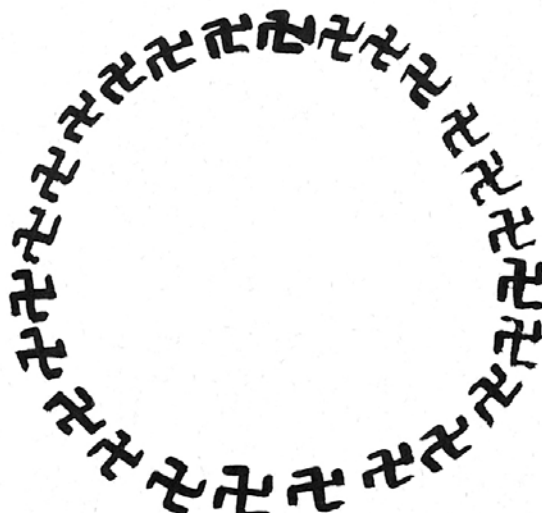
하물며 자기의 종교를 존승한 나머지 다른 이의 종교를 서슴지 않고 비난하는

지경에 이르면 그것은 멧목을 타는 사람이 아니라 멧목의 노예가 된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엔 너무나 많은 것 같다. 자신이 믿는 종교의 가르침을 따라 열심히 수행하려 하되 다른 이의 종교를 '우상숭배다', '미신이다' 하며 비난하기에 바쁜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 가르침의 노예가 된 경우이다.

불교종중에 크게 기여했던 인도의 아쇼카 대왕은 다음과 같은 칙령을 바위에 새겨 놓도록 했다.

「...나의 종교를 존중하면 자기가 믿는 종교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내 종교를 찬양하기 위해 남을 헐뜯는 사람은 결국 자기가 헌신하려던 제 종교를 더럽히는 사람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주변에는 이 아쇼카 왕의 경구를 귀담아 들어야만 할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찬양과 헌신이 지나쳐 결국 누워서 침 뱉는 격이 되



는 줄 모르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중요한 무엇인가. 불교·기독교·천주교...라는 이름이 종교가 아니다. 종교는 '진리의 가르침'을 그 내용으로 하기 위해 종교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름으로서의 불교, 기독교...를 두고 이것저것을 따지는 것은 예컨대 장미를 좋아하는 사람과 국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서로 장미가 좋다, 국화가 좋다고 다투는 것과 진배없다.

국화도 꽃이고 장미도 꽃이다. 아름다운 꽃과 향기는 꽃에 있는 것이지 국화라는 이름, 장미라는 이름에 있는 게 아니다.

종교를 믿는 것은 진리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지 이름을 따르는 게 아니다. 이름엔 진리가 없다. 진리엔 이름이 없다. 진리는 오직 진리 그 자체이다. 고로 '불교'라 함도 이름이다. 함으로 불교를

배우고자 하면 종교로서의 불교가 아니라 진리에 대한 가르침으로서의 불교를 알아야 한다. 그게 부처님께서 누누히 당부하신 도리이다.

다 같은 사람이면서 우리는 고향 사람, 학교 동문, 같은 성씨...등, 이름따라 패를 가른다. 영남·호남, 한국인·일본인, 백인·흑인... 그렇게 가르고 또 가르다가 급기야는 내 종교, 내 종교라는 이름으로 또 쪼갬다.

종교가 이름·상표로 전락할 때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줄 멧목은 유실된다. 부처님 말씀을 좇아서 이름에 얽매어 지 않는 게 불보살공부이다.

협찬: 유석현·태용례